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임시 임원 회의** : 지난(2/6/11) 임원회의에서 거론되었던 2011년 성가대 피정/PICNIC의 날자, 장소, 경비, THEME 등 세부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이번 일요일(2/27) 성가대 연습후에 (약 1시45분경) 임시 임원회를 소집 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검토하시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대원 요한 형제님** 2/26일부터 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모든 일 주님과 함께 원만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건 라우렌시오 형제님**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3/3-3/27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남동생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 흥진 테레사 자매님** 모친의 88세 (미수)축하식에 참석차 2월 14일-27일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모친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테레사 자매님의 즐겁고 기쁜 여행길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 **2011년 사순 & 부활시기에 부를 성가를 모은 CD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 메일에 그 곡 리스트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곡이 많은 관계로 미사곡, 알렐루야, 만민들이 기뻐하라만 파트연습곡을 넣었고, 나머지 곡들은 실제 합창만 넣었습니다. (총 20 Track)
- 악보자료와 거의 모든 곡의 파트 연습은 아래의 성당웹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2011_easter
- CD에 배포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다시 올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907> **최 일해 다니엘 제공**

[마태 6.24-34]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 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히브리서13,6)”

금주의명언

“진리는 소박하고 겸손한 자에게서 드러난다.”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할까?

부생모유 그은혜는 태산보다 높고큰데
청춘남녀 많다지만 효자효부 안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싫어 빈정대네

제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다 밥못먹고
과자봉지 들고와서 아이손에 쥐어주나
부모위해 고기한근 사올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앓으면은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부모 병이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열자식을 키운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자식은 한부모를 귀찮스레 여겨보네

자식위해 쓰는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위해 쓰는돈은 한푼두푼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잡고 외식함도 잦건만은
늙은부모 위해서는 외출한번 못하도다

내자식이 소중한데 너는자식 아니더냐
아들있고 딸있는데 양로원이 웬말인가
늙은것도 원통한데 천대받고 팔세받네
너도늙은 부모되면 애고지고 설은지고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나면 효심날까
예문갖춰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몸이 소중한데 부모은덕 생각하고
내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후에 효자나고 효부나네
가신후에 후회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
생각하고 말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부모님 열자식 한부모가 보살펴도
한부모 열자식이 못모신다

아들딸 애지중지 키웠어도
그은공 아는자식 한놈없다
부모가 오래살아 계신것도

요리의 천국

“삼겹살 두부말이”



<재료>삼겹살 8장, 두부 300g, 밀가루 2T, 참기름 1T, 쪽파 약간
소스; 다시마물 80cc, 맛술 2T, 설탕 2T, 간장 2T

<만들기>1. 두부를 스틱모양으로 8등분한 후 수분을 최대한 짜~악 빼주세요~

2. 두부의 수분이 제거되었다면 밀가루 옷을 고루 입혀준 후 삼겹살을 돌돌~감아주세요

3.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두른 후 삼겹살 말아준 두부의 사방을 고루 구워주세요~

4. 삼겹살이 고루고루 익혀지면 섞어두었던 소스를 팬에 부어준 후 삼겹살 두부말이에 고루 베이도록 바~짝 조리주세요

5. 모두 조리된 삼겹살 두부말이를 접시에 담은 후 쪽파 송송을 고루 뿌려주시면 완성

Tip !! 두부에 밀가루 옷을 입힐 때 밀가루를 채에담아 솔솔솔 뿌려주시면 손에 묻히지 않고 골고루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유머” ㅎㅎㅎ

한 여자가 하느님께 물었다.
"하느님은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라.
남자를 만들 때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해달라
잔소리가 심할 텐데 그걸 어찌 다 들어주겠니??"

과연 말대로 했으면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ㅎㅎ

